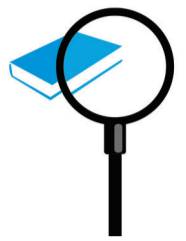


올림픽 종목에 그림 그리기가 있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하루 5분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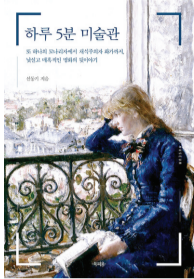
선동기 지음

‘처음 만나는 그림’의 저자 선동기는 ‘그림 읽어 주는 남자’로 불린다. 미술에 관한 글을 쓰고 강의 하며 틈틈이 책을 펴낸다.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레스까페’는 네이버 선정 미술 분야 파워 블로거로 7년 연속 선정될 만큼 지명도가 높다.

그는 “널리 알려진 화가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나 낱설지만 매력적인 화가들을 발굴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그림 세계와 삶을 소개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펴낸 ‘하루 5분 미술관’은 그림에 담긴 이색적인 사연들을 담고 있다. 낱설고 매력적인 명화의 뒷이야기는 화가와 예술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은 감동의 드라마다. 비록 올림픽이 예전만큼 인기는 못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짜릿한 즐거움과 훈훈한 감동을 준다. 개인과 팀의 경쟁이지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올림픽은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 미술사를 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적지 않다. 예전 올림픽 종목 가운데는 예술 분야가 정식 종목이었던 경우가 있었다. 올림픽을 처음 제안한



그러나 예술 종목은 1948년 런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예술이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프로라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당시 한 개라도 메달을 획득한 나라는 23개국이었으며 독일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서 독일이 32개 메달을 가져간 것은 자국에서 열린 영향이 크다.

올림픽과 관련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네덜란드 국민화가 이삭 이스라엘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어느 갑부로부터 작품 의뢰를 받고 ‘붉은 옷을 입은 기수’를 완성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부딪힌다. 갑부가 그림이 섬세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작품 인수를 거부하고 돈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빛과 어둠이 있는 법. 이 그림은 후일 1928년 암스테르담 하계 올림픽 회화에서 금메달을 수상한다.

186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 졸업반이었던 크람스코이는 진부한 교육 방식에 갈등을 한다. 졸업 작품으로 신화와 농도 해명령과 관련된 황제의 업적을 다룬 그림을 그리라는 요구를 받는다. 크람스코이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과 자퇴를 선언한다. 13명이 동조한 이날의 거사를 미술사에서는 ‘14인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1923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회화 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이삭 이스라엘스 작 ‘붉은 옷을 입은 기수’(왼쪽), 톨스토이로부터 “내가 본 그리스도 중 최고”라는 상찬을 받은 크람스코이의 ‘광야의 그리스도’(1872).

크람스코이의 ‘광야의 그리스도’는 그의 대표작으로 그리스도 고행을 다룬 그림이다. 1860년대부터 그려왔지만 처음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자 수직 구도 대신 수평 구도를 접목한다. “맨발의 그리스도는 밤새 울린 기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 두 손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밤의 찬 기운을 피할 곳도 없는 생활은 얼굴을 험하게 만들었지만 눈빛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크람스코이는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의 고행을 모

티브로 사회에 대한 도덕성을 묻는다. 화가의 평생 기준은 도덕성이었다. 그의 진정성을 알아본 당대 문호 톨스토이는 그 작품에 대해 “내가 본 그리스도 중 최고”라고 상찬했다.

물감 때문에 화가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 바로크 시대 화가 카라바초는 물감의 남용으로 죽게 됐다는 것이다. “미술사 최고의 천재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보여준” 작품으로 꼽히는 ‘베드로의 부인’은 명암대비가 뚜렷하다. 데일리 뉴스(2010년



6월 17일자)가 ‘가디언’ 지 보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카라바초 유골을 조사한 결과 “죽음이 그림과 관련된 남용 가능성 85%”였다는 것이다.

이밖에 ‘요절한 여성 화가 마리 바시키르체프가 바라본 세상’을 비롯해 ‘어찌면 다 빈치가 그렸을 또 다른 ‘모나리자’ 이야기’, ‘현실보다 무시무시한 그림 속 전염병 이야기’ 등 이색적이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북피움·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시, 역사의 쓸모

최태성 지음

김태성 한국사 강사는 역사를 전공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고교시절 성적이 잘 나와서 역사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회과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1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을 접하고 역사적 사실에 회의를 느꼈다. 그것은 다름 아닌 5·18민주화운동 영상. 새로운 시선으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후 오랫동안 고교 교사로 역사를 가르쳤다.

TV역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했던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다시, 역사의 쓸모’를 펴냈다. ‘합리적이고 품위 있는 선택을 위한 20가지 지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과 식견 등을 담고 있다.

당초 지난 2019년 발간된 ‘역사의 쓸모’는 30만 부 가까이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는 역사를 실용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물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달리한다. 수만 명이 인생책으로 언급할 만큼 인기를 끌었으며, 이번 책은 한 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들의 요청을 받고 5년에 걸쳐 집필한 결과물이다.

책에는 교육에 대한 저자의 철학도 담겨 있다. ‘이완용을 만든 교육, 운동주를 만든 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한다. 오로지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공부했던 이완용은 출세지상주의에 입각한 선택을 했다. 그는 높이 올라가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나라를 팔아도 양심을 속여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에 반해 운동주는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조국의 해방을 기원했다. 그가 남긴 주옥같은 사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나라사랑은 물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생각하게 한다.

<프런트페이지·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읽을수록 빠져드는 도시기담 세계사

가타노 마사루·스카이 노리코 지음, 서수지 옮김

‘질풍’로 잘 알려진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가 30대 중반에 그렸다는 ‘죽은 어머니와 아이’(노르웨이 오슬로 몽크미술관 소장)는 침대에 누워 쓰늘하게 식은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화폭 너머의 무언가를 바라보며 양쪽 귀를 틀어막은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다.

놀랍게도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소녀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는 모습을 봤다가 어머니의 침대에서 침대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등의 자신이 겪은 괴이한 목격담을 고백했다.

스페인 출신 화가 브루노 아마디오가 그린 ‘우는 소년’은 벽에 걸려두면 반드시 화재를 일으킨다는 저주받은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물건과 집, 건물을 몽땅 불태우고도 정작 그림 자신은 그을음 하나 없이 말짱히 살아남아 끊임없이 화재를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그림이다.

저널리스트와 여행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가타노 마사루·스카이 노리코 부부가 쓴 ‘읽을수록 빠져드는 도시기담 세계사’는 이처럼 기묘하고, 흥미롭고, 위험천만한 13편의 유럽 도시기담을 담고 있다. 30여 년간 유럽 33개국을 종횡무진 다니며 무섭고 기묘한 스토리를 취재하고 발굴한 성과물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서운 노래 ‘글루미 선데이’ 이야기, 공포영화 ‘컨저링’의 모티프가 된 ‘저주받은 인형’ 에나벨 이야기, 650명의 처녀를 피의 제물로 삼은 광기의 백작 부인 에르제베트 이야기 등 연일 폭음이 이어지는 요즘 읽기 딱 좋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사람과 나무사이·1만9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사운드 오브 뮤직

박은지 지음

‘소리와 음악’에 대한 정의는 철학자마다 다르다. 플라톤은 ‘공기와 귀를 통해 뇌와 피를 거쳐 혼까지 전달하는 자극’으로 소리를 정의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당대에 연구되지 않았던 ‘내이(內耳)’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현의 길이와 음의 높낮이 관계를 규명한 피타고라스 이론도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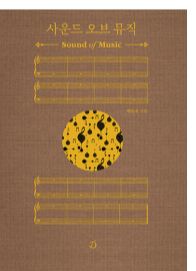
오늘날 인류는 소리의 본질을 어떻게 규명하는가. 과연 음악이란 무엇이며 진동이나 파장 등 피상적 현상을 넘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의 정체란 무엇일까.

과학, 수학, 역사 지식을 융합해 ‘소리가 음악이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나왔다. 프랑스 국립고, 튀에유 말메종 음악원에서 슈퍼리어 과정을 수료한 뒤 뉴욕주립대에서 음악학사 학위 등을 받은 박은지는, 최근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음악에 얽힌 과학적 사실들을 철학적으로 풀어냈다.

책은 ‘소리는 어떻게 음악이 됐는가’라는 피타고라스의 철학적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음악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행해 왔고 일반 과학은 물론 천문학과 같은 예술과 분야에서도 탐구돼 왔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청각적인 예술인 소리의 영역으로부터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적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그는 음악의 논리를 수로 체계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물체의 진동 원리를 발견하여 연구했고, 그 원리를 수학적 비율로 세세히 설명해 냈다.”

피타고라스의 분석 외에도 케플러,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 그레이엄 벨, 엔지니어 로버트 모그 등이 소리에 대해 펼쳐낸 이론들을 소개한다. <디페랑스·3만2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40724-중-173103호

<광고>

상무지구 BYC사거리 진료문의 | 062-381-3900

이제 광주스마일안과의원에서 시력을 개선하세요!

-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 풍부한 임상경험의 조용윤원장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과



광주 스마일 안과
Smile Eye Clinic

스마일수술/라식/라섹
드림렌즈 / 노안라식
www.smile-eye.co.kr